

3. 가구 분포

총 17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밀양 박씨(密陽朴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평창 이씨(平昌李氏)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고현성지(古縣城趾)

오랜 세월로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2) 성황당(城隍堂)

사당에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을 모시고 있으며, 엄선된 제관(祭官)이 매년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3) 수전대(水殿臺)

옛날 가뭄이 극심할 때 현령(縣令)을 중심으로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던 곳으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4) 포진(浦津)

군현성(郡縣城)이 있을 때 군병(軍兵)이 주둔하던 기지(基地)였다고 전한다. 지금은 이 포진(浦津)에서 각종 해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어 외래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제9절 연지2리(蓮池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한발(瀚渤)과 봉우의 2개 자연부락이 있는 마을로, 동쪽은 연지3리(竹津洞)며, 서쪽은 읍내리(邑內里), 남쪽은 연지1리(縣內里)와 연호정(蓮湖亭)이 있고, 북쪽은 온양1리인 양정(洋亭)마을과 접해있다.

2. 마을의 역사

1) 봉우

죽진동(竹津洞)의 뒷산 너머에 있는 봉화대에서 내봉(內烽), 외봉(外烽)을 합하여 봉우라 불렀다. 개척 연대는 미상이나 여러 골짜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2) 한밭(瀚渤)

한무제(漢武帝)에 장건(張騫)이 탄 누선(樓船)이 한밭(瀚渤)에 표착(漂着)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한밭이란 부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동해와 약 200m 거리에 접해있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신축됐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30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주요 성씨이다.

4. 마을의 특징

1) 고성늪, 연호(蓮湖), 연지(蓮池)

옛날 이곳에 고씨(高氏)들의 집단마을이 있었는데 천지 변화로 늪이 되었으므로 고성늪이라 하다가, 그 후 늪에 연꽃이 많이 피어나므로 연지, 또는 연호라 하였다.

2) 불미골

옛날 농기구(鐵具)를 제작 수리하던 대장간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성황당(城隍堂)

외봉(外烽)에서 한밭(瀚渤)로 가는 산 입구에 있는데, 건립연대는 미상(未詳)이다. 오랜 세월로 노후되어 약 40여 년 전에 독지가(篤志家) 세 사람(李氏, 張氏, 韓氏)이 주축이 되어 새로이 사당을 건립하고, 매년 정월보름 자시에 동민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혈육이 없던 세 사람 모두가 3년에 걸쳐 득남(得男)하였다고 전한다.

4) 연호정(蓮湖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정자로 1815년(순조 15) 연호 북쪽 기슭에 정자를 세우고 향원정(香遠亭)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1922년 7월 당시 울진군수 이기원(李起遠)이 고을의 선비들과 함께 옛 동헌의 객사 건물을 옮겨 세우고 연호정이라 이름을 붙였다. 연호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익공양식의 정자로 지면에 서 약 30cm 띄워 누마루를 깔고 주위에 평난간을 돌렸다.

제10절 연지3리(蓮池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가 있고, 서쪽은 연지2리(烽谷), 남쪽에는 연지1리(縣內里)가 있으며, 북쪽은 온양1리(洋亭)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멀리 죽변항(竹邊港)이 바라보인다. 마을 뒷산에는 곤죽(昆竹)이 병풍처럼 자생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개척 연대는 미상이며, 울진 장씨(蔚珍張氏)와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가장 오래 살아온 씨족이다. 이 마을 뒷산인 죽진산(竹津山)에 고려 죽진봉수대(竹津烽燧臺)가 있었다 하며, 뒷산에 자생하는 곤죽(昆竹)을 화살대로 사용하였다 한다. 봉수대(烽燧臺)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주민이 살아왔다고 추정된다. 울진군이 2013년에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3. 가구 분포

총 9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영일 정씨(迎日鄭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